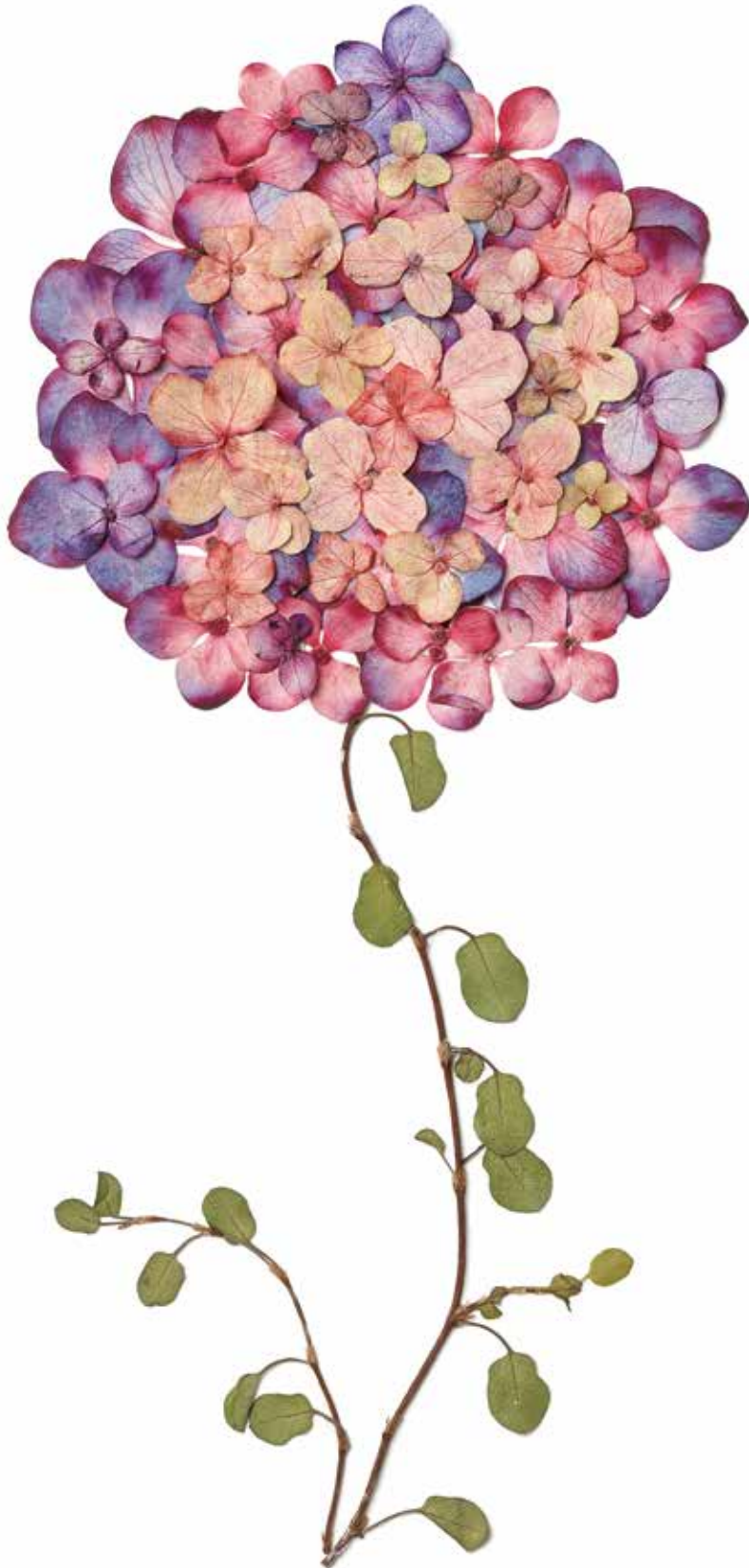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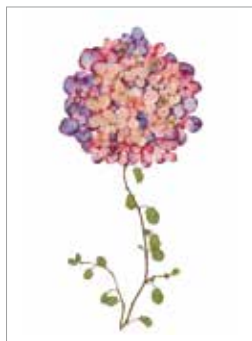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6

JUNE 2017
vol.30
MONTHLY MAGAZINE



압화 방수정 작가 | 작품 '6월의 시간'

꽃만 꽃이 아니고 나 또한 꽃이었음을 깨닫는 시간,
봄은 늦고 여름은 이른 6월의 시간을 만끽할 때.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행복한 나날이로
진주알이 한 줄로
꾸며져있듯이
소박하고
자자살하는 기쁨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길 같이요

이현심철년 유월미
'빨간 머리 앤' 중에서
서터 이상현  쓰러

행복이 먼저일까? 성공이 먼저일까?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자기가 하는 일과 방식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다.

- 마야 안젤루 -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무엇일까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까

성공이 먼저일까. 행복이 먼저일까? 누구나 살면서 성공과 행복을 바란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어렵기만 하다.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일념 하에 끊임없는 활동과 정신적 혹사를 어느 순간 삶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럴수록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왜 이토록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데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 심리학 연구를 집대성해 '해피니스 트랙'을 펴낸 에마 세팔라에게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고 성취하라, 성공에는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임을 받아들여라, 어떻게든 끝까지 인내하라, 자신에게 꼭 맞는 영역에만 집중하라, 자신의 강점을 의지하라,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라 등을 강조한다. 이러한 성공 관점은 우리 사회에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물론 이 방식이 통할 때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엄청난 댓가를 지불하기 마련이다.

행복은 성공해야지만 따라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앞서 추구해야 하는 선행물이다. 우선 삶을 '행복'에 맞춰 재조정할 때 성공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진다. 현재를 사는 것이 행복의 요소다. 늘 미래를 뒤쫓으며 다음 할 일, 다음 목표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나누고 있는 대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실제적인 몰입과 더불어 일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생산적인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회복력을 키우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다. 과도한 활동에 몰두하는 대신 스트레스를 신속하게 회복하여 역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평소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잘 관리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일상의 만족으로 이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중요하다. 행복한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또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타심의 마음은 나의 행복으로 연결된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이기적으로 경쟁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공감과 관심을 표현하고 그들과 협력적 관계를 유지할 때, 훨씬 놀라운 충성도와 기쁨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이다.

현재를 사는 방법, 마음을 현재로 끌어올리는 법

현재에 집중하는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하다. 일단 10분을 목표로 하기 싫거나 최대한 빨리 해치우고 싶은 어떤 일이 있다고 해보자. 이때 10분 동안은 어떻게든 완전히 집중하려고 노력해보라. 그렇게 해보면 ‘어라, 따분할 줄만 알았는데 이 일도 할 만한데?’라는 기분이 들 수 있다. 또, 명상을 하거나, 호흡법, 즐거운 감정에 집중하거나, 휴대폰 등 전자기기의 ‘단식’도 방법 중의 하나다.

현재를 사는 것이 생산적인 카리스마로 연결

카리스마있는 사람은 우선 공감능력이 뛰어나다. 이 공감능력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기울여야만 가능하다. 또 그들은 경청기술이 뛰어나다. 언어적으로든 비언어적으로든 상대방이 하려는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끌린다. 그 다음이 시선맞춤이다.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바로 시선맞춤이다. 진심어린 동의도 필요하다. 이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며내기 힘들다. 또 자신감이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않고 진정성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이다. 능숙한 말솜씨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과 의미 깊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재에 충실할 때 이러한 능력이 나온다. 이것이 생산적인 카리스마로 이어진다.

평정심을 유지하며 정신에너지를 집중하는 방법은

큰 그림을 그려라. 일을 하면서 ‘방법’이 아니라 ‘이유’에 집중하다보면 일에 대한 접근이 달라진다. 지금 하는 일이 자신의 관심사나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떠올리면 에너지를 회복하고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초과근무까지 하며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행을 간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일은 기꺼이 할 만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유, 목적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일을 ‘의무감’이 아닌 즐길 수 있게 된다. 감사하는 습관이나 일하지 않을 때는 일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 등도 방법이 된다.

창의적인 게으름 피우는 법



다양화를 통해 집중 상태에서 벗어나거나, 고요한 시간을 보내거나, 일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양화를 위해서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일을 폭넓게 경험하는 게 좋다. 샤워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스트레칭 등 몸으로 하는 일을 말한다. 이러한 일은 창의성에 바탕이 된다. 창의성 전문가들은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을 3단계로 이야기한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기술을 더 세련되게 연마하는 숙달의 단계를 거쳐 잠시 머리를 비우는 일을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하는 영감의 시기를 지나서 원래 붙들고 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 집중하면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해결방안이 떠오른다고 말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일상의 활동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음악을 듣거나, 산책, 책상 정리가 될 수 있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도 방법이다. 요리, 악기연주, 그림 그리기 등이 있다.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나 사람을 많이 대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어나 체스 배우기, 시 읽기 등을 추천한다. 또 평소 관심 영역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잡지, 다큐멘터리를 들여다보거나 관련자를 만나는 것도 방법이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지는법

아인슈타인은 천재로 불리지만 사실 자신은 강점과 타고난 재능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강점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여겼다. 강점이 아닌 자기 자신의 노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이렇듯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행복과 자신감, 성공을 좌우한다. 자기비판을 절제하고, 스스로와 더욱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행복한 성공에 이르는 길이 훨씬 가까워진다. 자신과 대화하기, 스스로에게 편지쓰기, 다독이는 문구 만들기, 감사목록 쓰기 방법도 그 중 하나이다.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7년 06월호 vol.30
MONTHLY MAGAZINE. JUNE 2017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이경자 실내조경디자이너

누구나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살고 싶어 한다. 느낌막이 실내조경디자이너에 도전한 이경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다. 꽃과 자연을 좋아하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실내조경디자이너의 삶으로 들어왔다. 너른 앞마당의 쌈 채소를 키우는 텃밭 정원에서부터 싱그러운 꽃, 식물과 대화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테라스 정원까지 삭막한 삶에 자연을 들여놓는 일로 삶의 행복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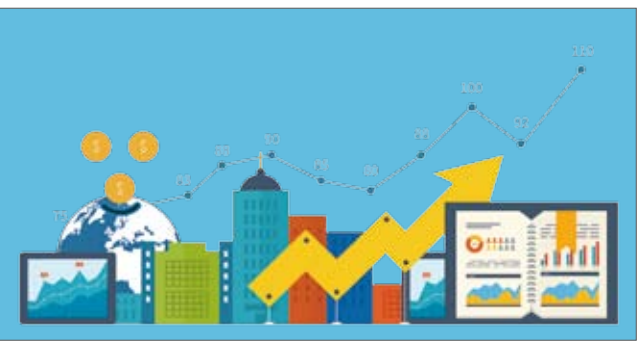
14 행복메신저 | 김한식 하나금융투자 광장동지점 부장

입사 후 24년. 자산관리 분야의 베테랑 김한식 하나금융투자 광장동지점 부장이 두뼉뼉 걸어 온 시간이다. 조용하고 묵묵한 걸음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꼼꼼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덕분에 만나는 손님들과 단단한 신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다.



26 Anti aging | 세월의 흔적, 지워볼까? 딱 7년만 젊어지기

나이 마흔을 넘어가면 '동안'소리를 듣던 사람들도 서서히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 선도 무너지고 주름도 깊어지면서 세월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을까.



34 부동산 이슈 | 분양형 호텔, 수익률은 높으나 투자에 신중할 필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인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대 10년까지 7% 가량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분양형 호텔은 솔깃한 투자상품이다. 하지만 수익률 보장이 시행사의 약정 사항이어서 구속력이 약하고, 향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위험도 크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행복이 먼저일까? 성공이 먼저일까?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꽃과 나무에서 발견한 두 번째 인생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퇴직연금 운용 및 성과

행복미래설계

- 14 행복메신저
손님은 함께하는 삶의 동반자
- 16 H씨의 행복설계
금융자산의 적절한 운용과 현금 흐름의 미스매치 관리가 중요
- 20 지식 플라자-세무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 22 지식 플라자-상품소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 24 Bravo! My Life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 26 Anti aging
세월의 흔적, 지워볼까? 딱 7년만 젊어지기
- 28 Art In Culture
영화, 인생을 추억하다

연금이슈포커스

- 32 연금 포커스
고령화시대, 주요 자산관리 수단으로의 신탁

경제 TREND

- 36 경제 이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살펴보기
- 40 부동산 이슈
분양형 호텔, 수익률은 높으나 투자에 신중할 필요

GLOBAL

- 44 지구인 이야기
독일, 양로원과 어린이집을 한 공간에

FUTURE

- 46 은퇴, 버킷리스트
일상을 기록하다, 드로잉



이경자 • 실내조경디자이너

꽃과 나무에서 발견한 두 번째 인생

누구나 자연과 좀 더 가까이 살고 싶어 한다. 느지막이 실내조경디자이너에 도전한 이경자 디자이너도 마찬가지다. 꽃과 자연을 좋아하던 그녀는 자연스럽게 실내조경디자이너의 삶으로 들어왔다. 너른 앞마당의 쌈 채소를 키우는 텃밭 정원에서부터 싱그러운 꽃, 식물과 대화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테라스 정원까지 삭막한 삶에 자연을 들여놓는 일로 삶의 행복을 더한다.

과천 경마공원 후문에서 차를 타고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조용한 화훼 단지가 펼쳐진다. 숲과 어우러진 하우스 틈으로 보이는 나무, 꽃, 식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차분해진다. 화훼 단지 안쪽에 자리 잡은 실내조경디자이너 이경자 씨의 작업실에 들어서자 작은 정원이 펼쳐진다. 촬영을 위해 부랴부랴 준비했다고는 하지만 실내에 펼쳐진 정원만으로도 미소가 새어 나온다.

작업실 한 쪽에 꽃과 나무들 사이로 무시무시한 공구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가녀린 외모의 여인이 다루기에는 다소 묵직한 공구들. 언뜻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조합이다. 하지만 여전사를 연상할 만큼 샘솟는 에너지는 젊음이 못지않다.

“제가 실내조경 디자이너로 홀로서기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워낙 생소한 분야이고, 조경은커녕 미술 공부도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억지스럽게 관련된 것을 찾아보자면 꽃과 나무, 자연을 좋아했다는 사실 정도예요.”

우연한 만남이 필연으로

조경디자이너에 도전하기 전 인생이 그렇듯 우여곡절을 겪었다. 남편 회사가 경영 악화로 부도를 맞으면서 3년간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막막하던 그때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두 딸에게 부모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련이 닥쳤지만, 주먹을 불끈 쥌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못할 건 없다는 의지와 베짖이 그때부터 생기더라고요. 고난이 저에게겐 약이 된 셈이죠.”

훗날 실내조경 디자이너로 생소한 분야에 뛰어들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된 것도 이러한 고난이 밑거름됐다.

의류사업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하던 그녀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하던 의류사업을 접었다. 인생 2막을 위한 새로운 일을 찾아야겠다고 마음 먹은 것이다.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온 ‘실내조경’이란 단어. 원래 꽃을 좋아하던 터라 그의 마음에 확 꽂혔다.

“사업을 접은 후 뭘 할까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실내조경디자이너라는 말이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 원래 꽃을 좋아하긴 했지만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게 되면서 ‘바로 이거야’라며 가슴이 뛰기 시작하더군요. 망설임 없이 도전했습니다.”

당시 만해도 실내조경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 않던 때다. “원래 꽃을 참 좋아했어요. 화분을 사다 놓고 꽃에 물을 주는 게 그저 즐거웠죠. 비실비실한 놈을 살려놓으면 신기하면서도 기특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 실내조경과 관련한 정보라면 뭐든지 찾아봤다. 그럴수록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지만 자신감이 충만해졌다.

치열하게 매달린 실내조경, 창업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단번에 실내조경 학원으로 달려가 3개월간 본격적으로 실내조경을 공부했다.

“나무와 꽃의 종류, 특징, 식재와 관리 방법은 물론이고 고객을 응대하는 법 등을 다치는 대로 배우고 공부했어요. 이제야 이 일을 찾았을까 아쉬울 정도로 배우는 내내 즐겁고 행복했죠.” 실제 현장에 가서 작업을 도우며 현장 일도 몸소 체험했다.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 쯤 후 현장에서 가르쳐주신 선생님을 도와드리게 됐어요. 2개월 정도 현장을 따라다니며 직접 체험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더라고요. 손재주와 감각도 통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기도 했지만 젊은 사람들을 따라잡아야겠다 싶어 수업 시간 외에도 매일 공사 현장에 틀어박혀 지낼 정도로 치열하게 매달렸다.

남들보다 2~3배는 더 체득하려고 열심이었다. 학원 강사에게 항상 다음 공사 일정을 묻고 따라다니며 ‘노가다’도 엄청나게 뛰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나이 먹은 사람이 과연 잘 할 수 있겠어? 며칠이나 버티겠어?’ 이런 시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냉소적인 우려를 ‘대단한데’라는 놀라움과 감탄으로 그녀는 바꿔놓았다.

실내조경디자이너로의 본격적인 삶은 이때부터 시작했다. 차츰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일이 맡겨졌다. 키가 쑥 자란 나무들을 자르는 리폼부터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화단 배치 작업까지 이렇게 그녀는 차근차근 실내조경 디자이너로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곧 창업에 들어갔다. 따로 사무실을 내지 않고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1인 기업 형태다. 딸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실내조경 설계 · 시공 · A/S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 ‘나래울조경’은 그렇게 탄생했다.

“배움의 시기를 마치고 현실에 뛰어드니 막막했습니다. 첫 작품은 마침 이사를 한 친오빠의 집 배란다였죠. 마침 TV 프로그램에서 학원으로 문의가 왔고, 우연히 제가 방송을 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뤄졌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은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젝트로 분주한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다. 주로 의뢰가 오는 곳은 아파트, 빌라, 회사다.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취미가 됐든, 직업이 됐든 좋아하는 일로 내 인생을 꽉 채우며 만족해하는 것이 행복인 듯합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고객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디자인을 구상하고 적절한 재료를 직접 구입해 공사를 해요. 구조물은 미리 만들어 설치하고 나무나 꽃 장식품을 디자인에 맞게 배치하면 완성이 되는 프로세스죠.”

틈틈이 조경 관련 전시회나 박람회를 자주 다니면서 자료와 아이디어를 얻고 작품을 구상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집에서도 실내조경에 관한 별의별 실험들을 진행한다. 디자인은 늘 새로워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그런 노력 덕분일까.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그의 디자인은 입소문으로 알려져 알음알음 의뢰가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치열하게 매달려야 해요. 집중하다 보면 없던 힘과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다가도 구상하고 나무를 만지다보면 어느새 몸이 멀쩡해져요. 문득문득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죠.” 인터뷰 내내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했던 그녀. 행복하냐는 물음에 그녀는 “실내 조경 일은 제게 행운이자 행복입니다. 땀범벅이 되고 온몸은 흠뻑 뒹겨져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행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취미가 됐든, 직업이 됐든 좋아하는 일로 내 인생을 꽉 채우며 만족해하는 것이 행복인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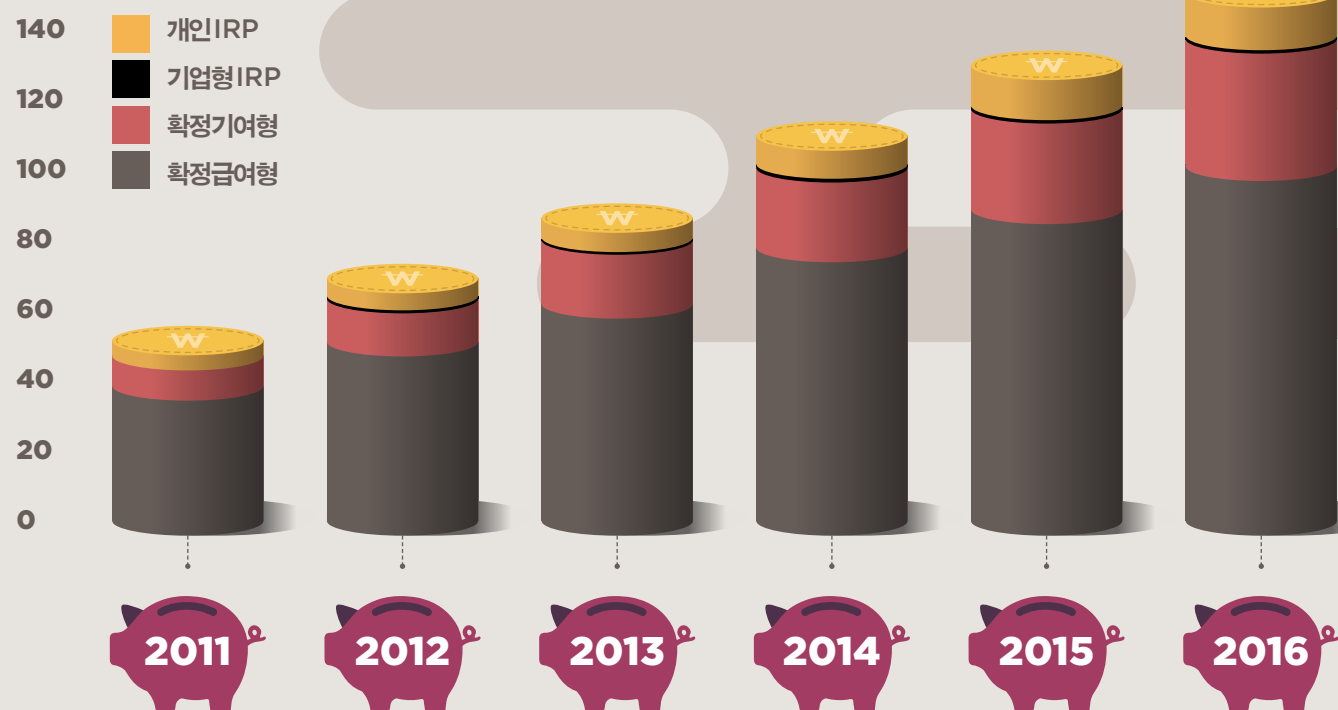
퇴직연금 운용 및 성과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원리금보장 중심의 운용으로 낮은 수익률 시현

1.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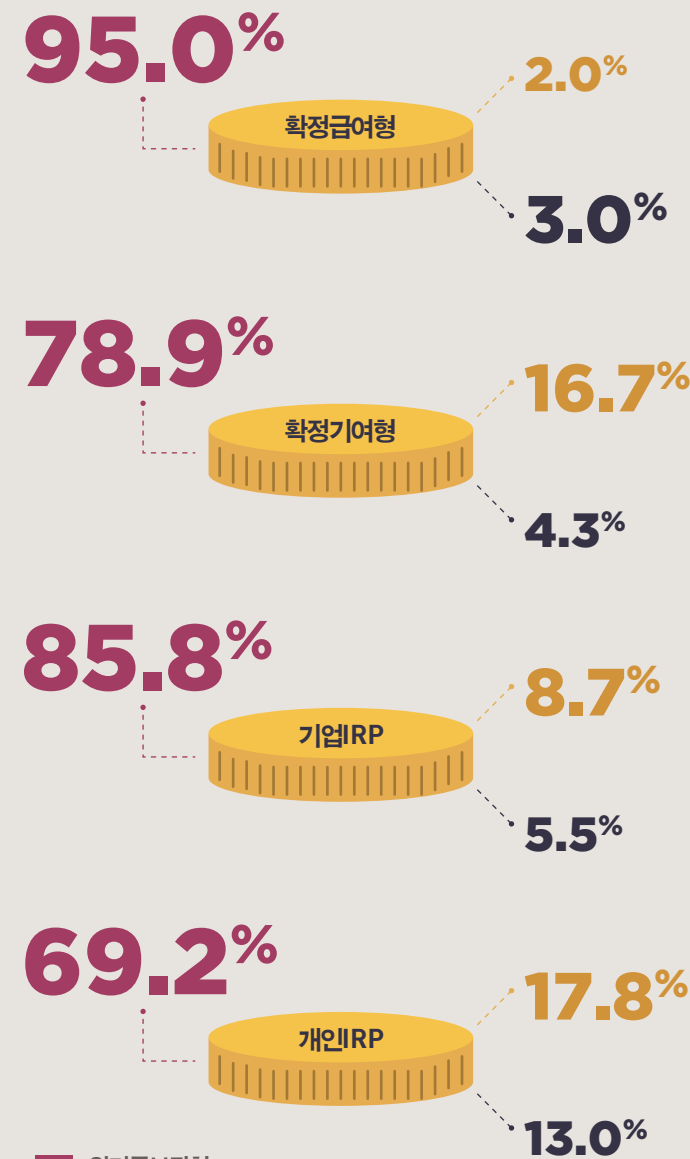
160 (조원)



2. 제도유형별 적립금 운용 비중

주 : 2016년 말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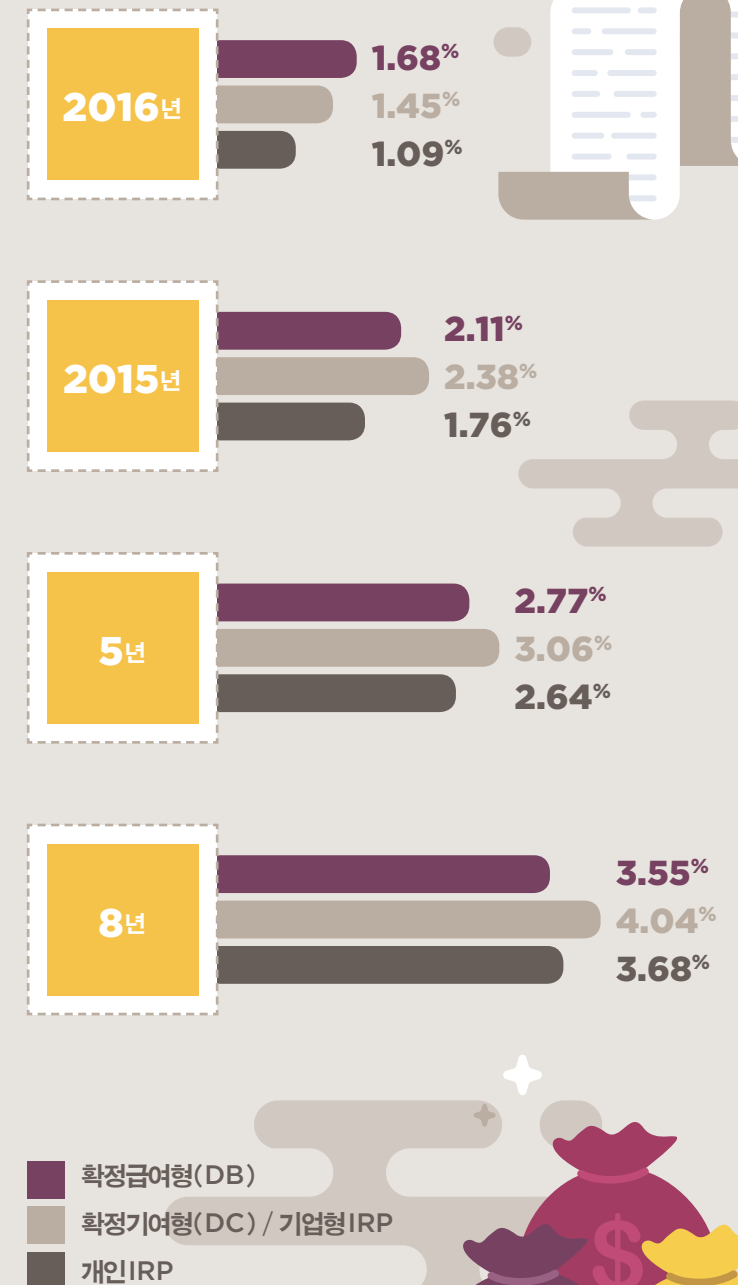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대기성 자금

3. 제도유형별 수익률 상황

주 : 5년, 8년 수익률은 2016년 기준이고 과거 5년,

8년 동안의 총비용 차감후 연환산 수익률임

자료 : 금융감독원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 기업형IRP
개인IRP

행복파트너

손님은 함께가는 삶의 동반자

김한식
하나금융투자 광장동지점 부장

입사 후 24년. 자산관리 분야의 베테랑 김한식 하나금융투자 광장동지점 부장이 뚜벅뚜벅 걸어 온 시간이다.

조용하고 묵묵한 걸음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치밀하고 꼼꼼한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덕분에 만나는 손님들과 단단한 신뢰의 끈을 이어갈 수 있었다.

“손님의 투자성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돈마련, 자녀교육, 은퇴설계, 주택마련 등 투자목적을 정확히 분류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특히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만족을 드리고자 노력합니다.”

김한식 부장은 인터뷰 내내 ‘손님의 성향’을 강조했다. 철저히 손님 입장에서 상품을 권유하고, 서비스를 실행한다는 그의 업무 철학이 고스란히 묻어난 탓이다. 모든 업무의 방향이 손님에게 초점이 맞춰 있었기에 오랜 시간동안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덕분에 손님의 신뢰는 덤으로 따라온다.

“기본적으로 손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합니다. 한번 보고 마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말이죠. 이러한 철학은 손님을 대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또 진심은 어떤 식으로든 전해진다고 믿습니다.”

김 부장은 자신관리뿐 아니라 손님의 개인적인 대소사까지도 꼼꼼히 기억해둔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손님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지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 역할도 마다하지 않는다. 손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다.

“손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분히 채워드리기 위해서는 제 자신에겐 철저히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투자, 자산관리 등 업무뿐 아니라 필요로 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님, 회사, 개인의 발전을 위해 자산관리에 적극적으로 매진하고자 합니다.”

손님 중에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실이 발생해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사무실 이전을 고민하고 있던 법인을 연결해드렸습니다. 법인 회장님과 해당 건물이 사무실 이전에 적당한 지 함께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차 문제로 성사가 되지는 못했지만 평소 저는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손님들의 다양한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연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손님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TIP

1. 노후에 나갈 돈을 지금부터 막아보자.

노년이 되면 의료비 지출이 많아진다. 미리 건강을 관리해 큰 돈이 나가는 것도 막고,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자. 또한 실손보험 등 보험 준비도 필요하다.

2. 노후에 매월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자.

급여의 일정비율을 연금저축에 불입하여 노후를 대비하고, 여유자금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자그마한 주택이라도 구입해 보자.

3. 적은 비용으로도 즐길 수 있는 주특기를 만들자.

노년에 풍족한 자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젊었을 때 악기 하나 정도 다룰 수 있는 실력을 쌓아 놓으면 즐거운 노후 생활이 될 것이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행복메신저
팁

금융자산의 적절한 운용과 현금 흐름의 미스매치 관리가 중요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H씨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H씨는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으며, 3층 연금도 잘 구축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자녀 결혼비용까지 감안할 때 다소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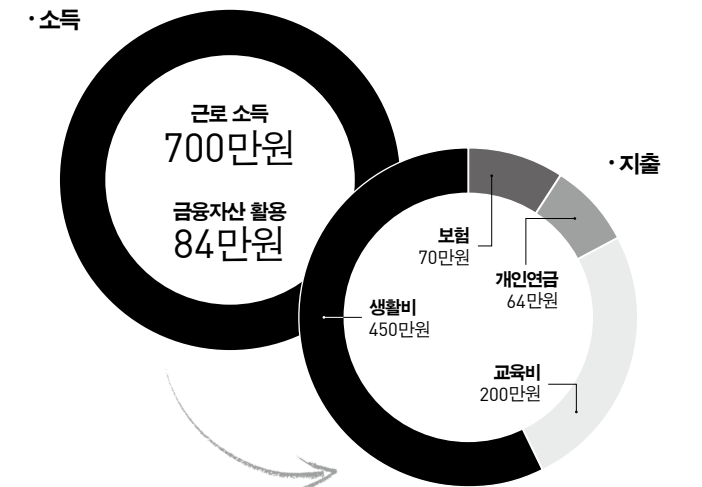


자녀 교육 및 결혼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할지 고민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H씨(만 49세)는 가정주부인 부인(만 49세)과 슬하에 고등학교 1학년생 자녀와 중학교 1학년생 자녀 2명이 있다. 현재 4.0억원 상당의 아파트에서 자가로 거주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으로는 연금저축펀드 1.4억원, 펀드 1.0억원, 주식 0.3억원, 예/적금 0.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별도의 부채는 없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수입으로는 근로소득 월 700만원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450만원, 교육비 200만원, 개인연금 64만원, 보험 70만원이 있다. H씨는 오랜 기간 동안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으며, 3층 연금도 잘 구축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최근 자녀들이 성장함에 따라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이 확대되어 매월 80만원 정도의 가계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자녀 결혼비용(총 2억원 예상)까지 감안할 때 다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4.0억 원
	연금저축펀드	1.4억 원
	펀드	1.0억 원
	주식	0.3억 원
	예금	0.2억 원
· 부채	-	-
· 순자산		6.9억 원



금융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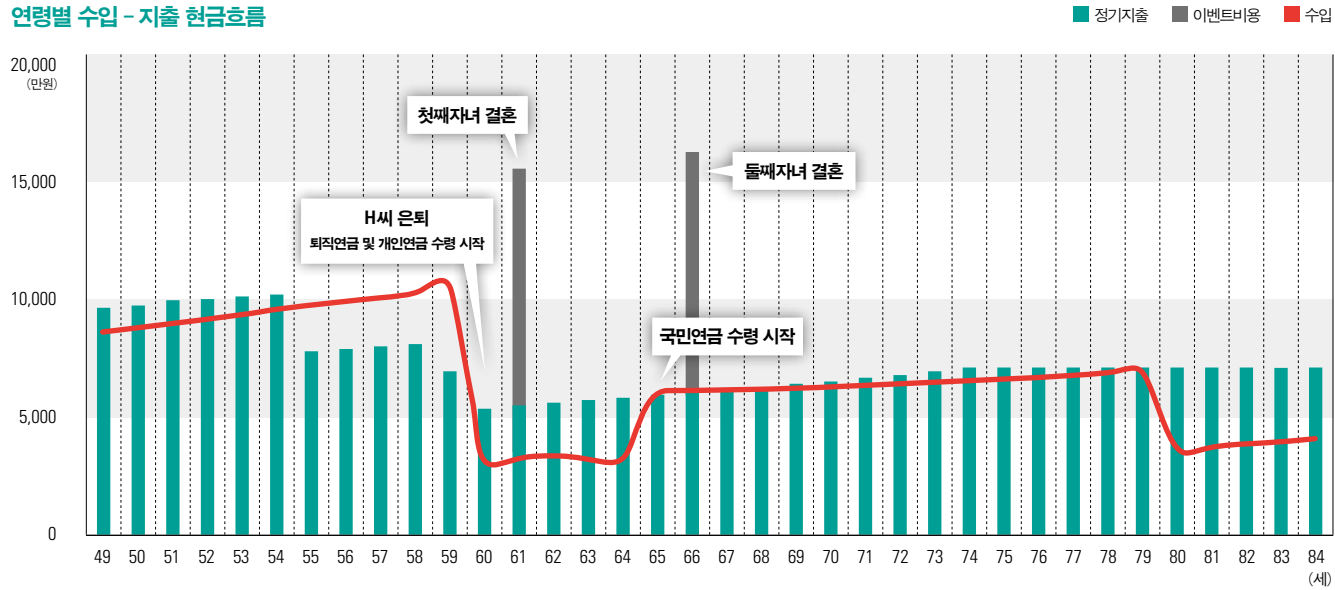
은퇴 후 현금 흐름 미스매치 기간에 대한 대응 요구

H씨는 60세 정도에 은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H씨 가족은 생활비로 월 45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는 것을 감안하여 이보다 적은 월 35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흐름 파악을 위해 미래 수입 구조를 살펴보자. 우선 만 65세부터는 월 163만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며, 퇴직연금의 경우 은퇴 직후인 만 55세부터 20년간 월 154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로 불입하고 있는 개인연금도 만 55세부터 10년간 월 107만원을 수령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보자. 우선 첫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인 만 54세까지는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째 자녀가 졸업하

고 은퇴 전인 만 59세까지는 여유 자금 발생이 지속되며, 은퇴 이후에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만 65세까지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수급이 종료되는 만 80세 이후 자금 부족 현상이 다시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3층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만 65세부터 만 79세까지는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속됨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H씨의 은퇴 준비는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편이며, 3층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지 않는 기간과 자녀 결혼비용 등 이벤트성 지출이 발생하는 시기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잘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에 축적해 놓은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과 운용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1) 현재 84만원의 가계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활용하고 있음
2)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급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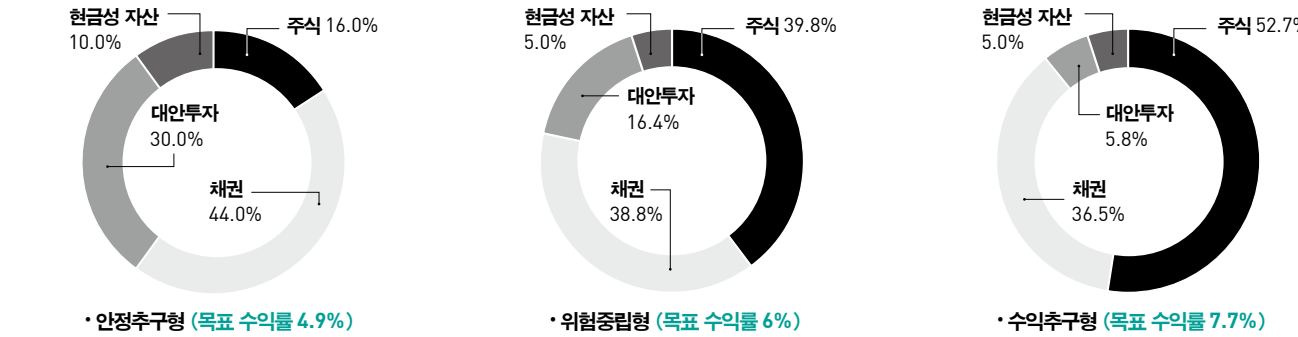
금융자산의 안정적인 운용만으로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가능

H씨가 현재 상황을 유지한 채 만 60세에 은퇴하게 된다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활용은 필수이다. 앞서 수입-지출 현금흐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인 만 65세까지와 만 80세 이후에는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기 때문이다. 실물자산을 활용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모두 활용해서 생활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금융자산의 수익률은 3.04%이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 4.9%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H씨의 경우 부채가 없으며, 3층 연금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안정추구형으로 운용한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지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시나리오 외에 H씨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H씨가 두 자녀에게 추가적인 상속을 원할 경우이다. 앞선 표준 시나리오에서는 금융자산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4억원 규모의 부동산자산을 두 자녀에게 상속해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자산 외에 금융자산을 추가적으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생활비 등 지출을 줄여서 금융자산을 추가적으로 축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위험을 추가적으로 감수하여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노후 삶의 질이 저하되는 관계로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만 분석해보고자 한다. 두 자녀에게 각각 5억원 정도를 상속하길 원할 경우 금융자산은 추가적으로 6억원이 더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필요 수익률은 5.42%가 된다. 기존 3.04%에서 약 2.4% 오른 수치이며,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에서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6%)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좀 더 적극적인 투자 방식을 가져가야한다는 의미이며, 위험을 조금 더 감내하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H씨가 노후 생활비를 높여 400만원으로 가고 싶을 경우이다. 노후에 여행, 레저, 골프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필요 수익률은 5.39%가 된다. 기존 3.04%에서 약 2.3%가 오른 수치이며, 첫 번째 시나리오와 마찬가지로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에서 표준투자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6%)로 전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H씨가 추가적인 상속 또는 지출을 원할 경우 금융자산 운용 위험을 추가 감내해야 한다. 다만 노후에 접어들수록 위험을 추가적으로 감내하는 전략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상속이나 생활비 증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삼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처음에 제시한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4.9%)의 경우 H씨의 목표수익률인 3.04%보다 높기 때문에 같은 운용 전략을 지속할 경우 약 4억원의 여유 금융자산이 남는 점도 있다. 이를 향후 자녀의 상속자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표준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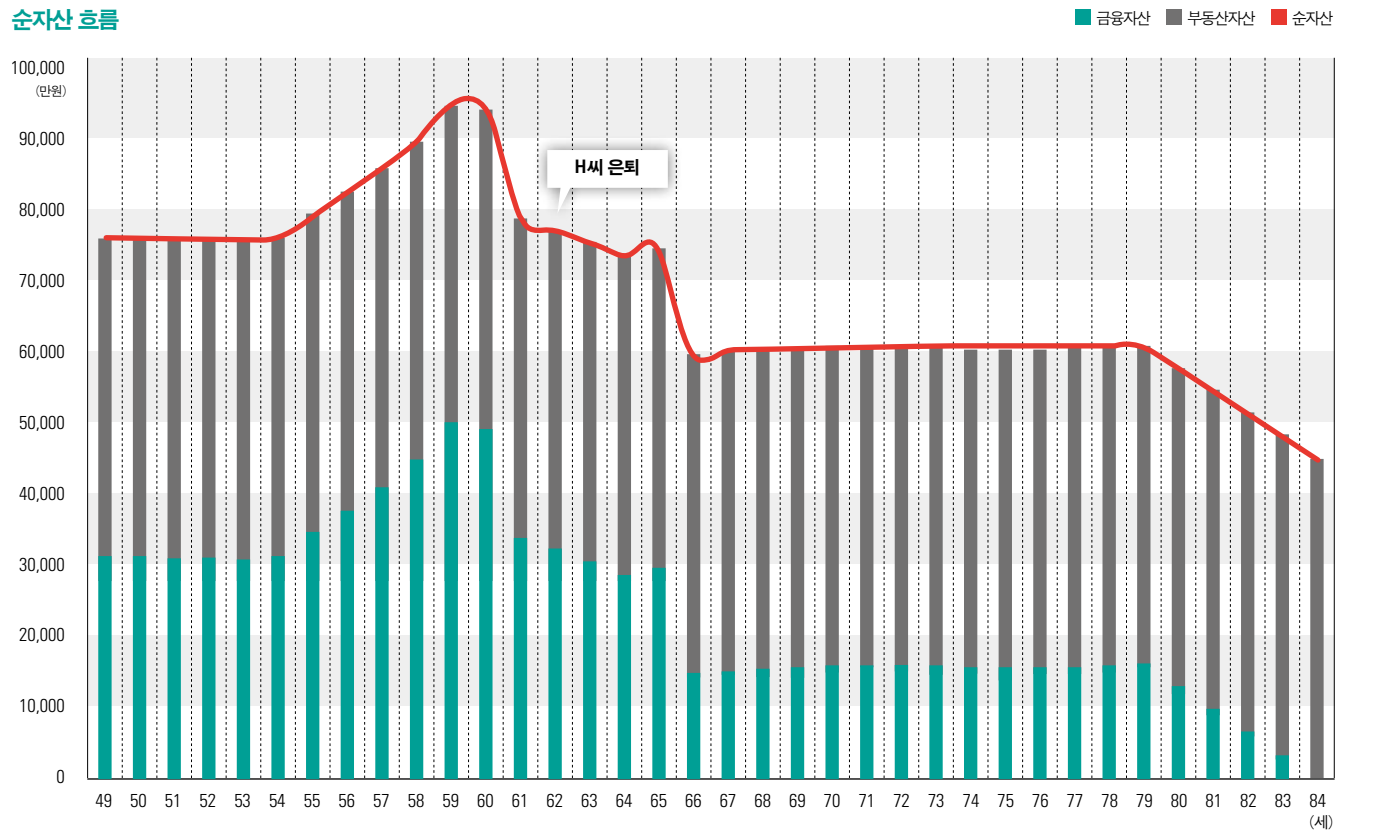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잘 구축된

3층 연금 체계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지름길

H씨는 그동안 대기업에 재직하면서 적지 않은 규모의 자산을 축적했다. 또한, 부채가 없고 3층 연금 체계를 잘 구축해놓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가계 적자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향후 금융자산에 대한 적절한 운용만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그리고 안정추구형 포트폴리오 운영전략으로만 지속해도 추

가 상속 등도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노후 준비 사례로 볼 수 있다.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바로 안정적인 현금 파이프라인 구축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도 항상 이를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한다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순자산 흐름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로 할까? 법인사업자로 할까?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다. 교육자금, 주거자금, 노후자금 등으로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다. 금리 1% 대의 시대에 상가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와 시세차익의 수익률을 얻고 싶은 분들이 많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의 형태를 결정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로 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로 할 수도 있다. 어떤 형태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 홍길동씨는 서울 000구에 상가 임대사업을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를 개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법인사업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 중에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체를 소유 및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를 통해서 법인의 이름으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법인의 소유는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1. 창업 절차	사업자 등록	법인 설립 후 사업자 등록
2. 사업준비비용	-	법인 설립 비용과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세금 포함) : 0.48%(과밀억제권역은 1.44%)
3.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	취득세(부가되는 세금 포함) 4.6%	취득세(부가되는 세금 포함) 4.6%(과밀억제권역은 9.4%)
4.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한 세율	6.6% ~ 44% (지방소득세 포함, 6단계 초과 누진세율)	11% ~ 24.2% (지방소득세 포함, 3단계 초과누진세율)
5. 배당에 대한 세금	-	금융소득으로 과세됨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 15.4%(지방소득세 포함) 2천만원 초과 금액 : (6.6% ~ 44%, 지방소득세 포함, 6단계 초과 누진세율)
6. 대표자 인건비	비용 인정 안됨	비용 인정됨
7. 사업 확장 시 사업 인 · 허가	-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음
8. 자금 조달	-	다양한 방법이 있음
9. 사업 자금의 입 · 출금	일반적으로 자유로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음
10. 상속과 증여	-	차등 배당, 주식 이전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음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법인사업자 형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형태가 유리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단정적으로 결론 지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사업여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아래에서 상가 투자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자.

1. 사업준비 절차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 상가 구입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로 할 경우 상가 구입 전 상법에 따른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사업준비 비용

개인사업자로 할 경우 취득관련 세금(취득세 등)을 제외한 특별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로 할 경우 정관 작성 비용, 법인 등기 비용 등 법인설립 비용이 발생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에 대한 주금(주식 취득) 납입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부가되는 세금 포함)는 납입금액에 0.48%이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서울, 성남, 고양, 수원, 과천, 안양, 인천, 군포 등)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1.44%이다.

3. 부동산 취득관련 세금

개입사업자로 상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부가되는 세금 포함)는 구입금액에 4.6%이다. 법인의 경우에도 취득세(부가되는 세금 포함)는 구입금액에 4.6%이나 과밀억제권역(서울, 성남, 고양, 수원, 과천, 안양, 인천, 군포 등) 안에서 취득하는 경우 9.4%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4. 상가 임대 소득에 대한 세율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가 임대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6.6% ~ 44%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의 소득은 10% ~ 22 %의 3단계 초과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한다.

5. 배당에 대한 세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배당이란 절차가 없다. 개인 사업소득이므로 이익은 전부 본인의 소유이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 법인의 이익을 개인이 인출하려면 배당이란 절차가 필요하다. 배당 후 개인의 금융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2천만원 이하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6.6% ~ 44%의 6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6. 대표자의 인건비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법인은 별도로 독립된 객체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실제 임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자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한다.

7. 사업의 인허가 등

사업을 확장하고자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인허가를 받는 경우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유리한 경우가 있다. 관공서 등에서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8. 자금의 조달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자 자금의 조달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 보다는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유리하다. 법인은 주식 발행, 금융기관 대출, 사채 발행 등을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9. 사업장 자금의 입 · 출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소유 사업체이므로 사업 자금의 입 · 출금이 자유롭다. 수시로 입 · 출금하여도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법인은 사업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여야 한다. 인건비나 배당 외에 절차로 대표자나 임원 등이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

10. 상속 및 증여 측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 시 분산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시 주식으로 분산하여 이전하기가 용이하다. 일반적으로 장기간 분할하여 증여하는 경우 세부담측면에서 절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고액 재산자가(소득이 많음)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고율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자금은 상속이나 증여로 과세가 된다. 이에 반해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이익금을 배당으로 지급받지 않으면 개인의 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식을 일부 증여 한 후 자녀에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당을 한다면 절세효과가 있다. 또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녀에게 차등 배당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형태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 전략에 도움이 된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최근 인구고령화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은퇴 후 평생 동안 국민연금 없이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7만명으로 19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어서며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반환일시금 수령자 중 60%이상이 최소 가입기간(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반환일시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가입자들이 노후 평생 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반환일시금의 수령전후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더 이상 납입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동안 납입한 적립금을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 또는 국적의 상실, 사망했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받게 되는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입한 원금에 3년 정기에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하여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수령은 가입당사자가 직접 국민연금에 청구하여 받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한편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 기대돼 반환일시금의 수령이 예상되는 가입자라면 우선 반환일시금의 수령시점인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수령 하지 말고 계속가입을 신청해 10년 이상 가입이 되도록 해 평생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한다. 그리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라면 다시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가입기간의 복원화를 통해 10년 이상 가입기간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면 반환일시금과 복원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평생 동안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

반환일시금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수급요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급여수준	-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기간의 3년 정기에금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청구방법	-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직접청구 - 청구는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음
반환일시금의 납부	-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지급받은 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금가입기간으로 인정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5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chi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사일 2015. 9월 30일(2015.09.30)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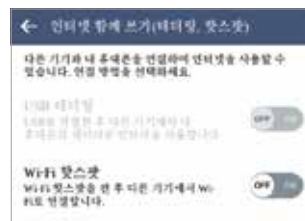
나이가 들수록 둔해지는 스마트기기 활용력. 익숙하지 않다는 핑계로 이대로 포기할 것인가. 스마트한 얼리어답터가 되는 것은 세대에 따른 정보 불균형 해소에도 중요하고 삶의 질과도 관계된다. 일단 도전해보자. 미처 알지 못했던 유익한 스마트폰 사용법.



#1

공유기 없어도 와이파이 설정하기

집에 공유기가 없어도 다른 기기와 내 휴대폰을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메뉴 - 설정 - 시스템 - 무선 및 네트워크 - 테더링 및 휴대용 핫스팟 - 휴대용 와이파이 핫스팟을 체크한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스마트폰을 구입한 이후 별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한 적이 없다면 '00000000'을 입력한다.



#2

구글 포토 설치하기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가장 아까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사진이 가득한 갤러리다. 하지만 만약 구글 포토가 설치되어 있다면 걱정 없다. 구글 포토를 이용하면 사진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네이버 N클라우드의 30GB의 용량을 제공하는데 비해, 구글 포토는 고화질의 사진으로 올리면 무제한 용량을 제공한다.



#3

팟캐스트 듣기

다양한 정보, 신선한 뉴스, 기발한 아이디어를 원한다면 팟캐스트를 들어보자.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 국민앱으로 통하는 '팟빵'을 다운로드 받으면 문화 및 예술, 취미, 정치, 어학, 종교, 게임 등 다양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



#4

카카오톡의 기능들

● 재미난 이모티콘 선물하기

기본적인 이모티콘이 지루하다면 이모티콘을 구입할 수 있다. 선물도 가능한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 이모티콘 대신 텍스트콘

이모티콘이 식상하다면 요즘은 텍스트콘이다. 채팅창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고 텍스트콘을 친다. 카테고리에서 마음에 드는 문구를 선택하거나 문구를 직접 입력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 링크 모아 보기

단체 카톡방에서 뉴스 링크를 자주 주고받는다. 찾고 싶을 때 다시 찾기가 곤란했다면 대화방 오른쪽 상단 세 줄 아이콘을 누르면 앨범 밑에 링크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걸 누르면 그동안 주고받은 링크를 모두 확인가능하다.



● 몰래 카카오톡 읽기

카카오톡 대화창 옆에 뜬 숫자로 상대방의 읽음 유무를 알 수 있다. 이 기능이 부담스럽다면 몰래 카톡 읽기에 도전해보자. 방법은 대화 전에 비행기 모드를 활성화하면 된다.(와이파이와 데이터 모드를 비활성화하고 비행기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된다.) 단, 대화를 읽은 후 반드시 카톡을 강제 종료해야 한다. 종료하지 않고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면 수신 신호가 상대방에게 전달돼 '1'이 사라진다.



TIP

안 쓰는 스마트폰도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법~

집집마다 서랍 안에 방치된 스마트폰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버려자니 아까운 스마트폰도 알고 보면 생활의 꿀템.

- LED 시계 - 앱 검색창에 시계를 친 뒤 마음에 드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된다. 밤에도 쉽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알람, D-day도 설정이 가능하다.
- 내비게이션 -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의 테더링(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와 다른 기기를 연결하는 방법) 기능을 활용해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할 수 있다. 맵피 같은 지도 미리 보기 기능을 이용하면 데이터 소모 없이도 활용가능하다.
- 가정용CCTV - 공기계에 'CCTV앱'을 설치한 뒤 작동하면 내 손안의 CCTV가 탄생한다.
- 블랙박스 - '지켜보고 있다 블랙박스'같은 앱을 다운받은 뒤 차량 앞 유리에 거치대를 부착해 기계를 고정시키면 된다.
- 리모컨 - 스마트폰 해당 제조사의 전용 앱을 설치하면 공기계를 리모컨처럼 사용할 수 있다.



세월의 흔적, 지워볼까?

• 딱 7년만 젊어지기

나이 마흔을 넘어가면 ‘동안’소리를 들던 사람들도 서서히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얼굴 선도 무너지고 주름도 깊어지면서 세월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세월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을까.

40대 후반 직장인 P씨는 평소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인지 안티에이징에 큰 관심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인위적인 시술을 한 사람들의 어색한 모습을 보며, 차라리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다는 생각도 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을 뿐 아니라 실제 나이보다 훨씬 많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분들이 저에게 동창이 아니냐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거울을 유심히 보게 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다 보니 솔직히 신경이 쓰이네요.”

서구일 모델로피부과 원장은 “10년 이상 젊어 보이기 위해 무리를 하기보다 딱 7년 정도 젊어 보이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수술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면서 티 안 나게 예뻐지는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한다.

주름보다 ‘얼굴 윤곽’을 잡아라

서구일 모델로피부과 원장



Q. 40대 이상 중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시술이 있다면.

수술 없이 주사로 간단하게 하는 뼈다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이 좋다고 생각한다. 요즘 레이저로 자기 나이보다 7년 정도 젊어보이게 하는 것이 인기다. 40대 이후에는 단순히 어느 한 가지 만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가 처지고 꺼지고 뭉치면서 얼굴 윤곽의 변화가 나타난다. 노화의 주된 변화를 주름으로 생각하지만, 20대들도 주름은 있다. 주름보다는 얼굴 윤곽이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 해지는데 그게 더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요소로 밸런스가 중요하다. 미간 주름의 경우는 인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톡스나 필러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

Q. 요즘 중년 남성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주로 어떠한 시술을 받고 있다.

40~50대 남자 분들의 경우 드라마틱한 변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조금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것을 원한다. 일명 CEO시술이라고 하는데, 눈 밑의 경우 눈밑꺼짐필러로 살짝 채우면 인상이 밝아지고, 미간의 주름은 보톡스나 필러를 이용한다. 이 두 가지를 시술받으면 젊고, 건강해보이며 인상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술을 많이 먹으면 귀밑샘이라는 침샘이 커지면서 턱이 넓어지고 두툼해진다. 이러한 것은 보톡스로 줄여줄 수 있다.

Q. 주름 관리는 너무 나이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주름 관리는 초반에 하는 것이 좋다는 데에 동의한다. 주

름이 오래되면 그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보톡스로는 안 되고 필러를 같이 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주름을 펴봐도 흉터처럼 주름선이 남게 된다. 따라서 주름 초반에 시술을 받아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5~10년 동안 꾸준히 하는 분들의 경우 처음 내원했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인다. 특히 미간은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 심해지기 전에 하는 게 좋다.

Q. 목주름의 경우는 어떻게 없앨 수 있나.

주름의 발생원인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다. 목의 가로선은 어렸을 때부터 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 깊어지면 필러로 주름을 채울 수 있다.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는 건 써마지와 같은 레이저치료가 필요하다. 50대 이후 마른 분들의 경우 목에 세로주름이 생기는데, 힘줄이 뭉쳐서 생기는 경우에는 보톡스가 도움이 된다.

Q. 필러나 보톡스 시술을 고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가격에 현혹되기보다는 개업한 지 10년 이상 된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적어도 한 자리에서 5년 이상 된 병원에 가는 게 좋다. 의사고 등을 낸 경우 병원을 자주 옮기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약을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술하는 의사의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영화, 인생을 추억하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반추해보게 만드는 영화들이 있다.

또 영화를 통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한다.



메디슨카운티의 다리

인생의 어느 때든
사랑은 '선택'의 문제



I don't want to need you / because I can't have you
당신을 원하게 되고 싶지 않소 / 당신을 가질 수 없기에

동명의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메디슨카운티의 다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사다. 1995년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필자는 풋풋한 스무 살 대학 새내기였다. 누구나 알고 있듯 이 영화는 평범한 일상 속에 어느 날 가슴 떨리는 감정을 갖게 된 중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다. 당시에는 '지긋한 중년의 나이에도 가슴 떨리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유부녀였던 프란체스카(메릴 스트립)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20여 년이 흐른 지금, 이 영화를 다시 봤을 때의 감정은 과거와 많이 달랐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아내로서, 엄마로서, 또 누군가의 무엇으로서 삶을 살아왔던 프란체스카에게 로버트를 만나 사랑에 빠진 3일 간의 시간은,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충만한 시기였다. 결국 함께 떠나자는 로버트의 제안을 뿌리치고 가족 곁에 남게 되는 현실적인 스토리지만, 어떤 사랑을 선택할지는 인생의 어느 때고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닐까.

해피해피브레드

"사람은 건배한 수만큼
행복해진다"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홋카이도 츠키우라에 위치한 아늑한 카페. 원하는 삶을 위해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온 젊은 부부 리에(하라다 토모요 분)와 미즈시마(오오시미 요 분)는 카페 '마니'를 운영하고 있다. 아내 리에는 요리와 커피를 담당하고 남편 미즈시마는 빵을 굽는다. 카페 2층에는 여행객을 위한 아늑한 방도 마련되어 있다. 이 카페 마니의 단골손님은 건배를 하며 "사람은 건배한 수만큼 행복해진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카페는 도시인들의 로망을 담고 있다. 카페를 찾은 손님이 주인 부부에게 묻는다. "도쿄에서 하시던 일을 접고 오신 거예요?" 그러자 남자는 무심한 듯 답한다. "네,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짧은 대답이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지금 나는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굿바이

다음 생으로 이어주는
통과의례 '죽음'



또 한편의 일본영화 '굿바이'. 촉망받는 첼리스트였던 주인공이 장의사로 직업을 옮기게 되고,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지만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오래 전 본 영화임에도 가끔씩 가슴 속에서 되살아나는 영화다. 심각하기보다는 약간의 코믹요소가 영화의 흐름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자연스럽게 관객을 빠져들게 한다. 이 영화에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만든 장면 중 하나는 화장터 아저씨가 친구의 화장을 치르며 하던 말에서다. "죽음은 문이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해 다음 생애로 나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삶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아 죽음을 담담하게 혹은 축제처럼 수용하는 장면은 흥미롭다. 또 하나. 베테랑 납관사 이쿠에이 씨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는 말이 있다. "미안하게도, 황송하게도 너무 맛있네요." 우리가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은 '죽은 것'이다. '죽음'은 우리 몸 속에서 영양분이 되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다. 바로 이 영화 '굿바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든다.





고령화시대, 주요 자산관리 수단으로의 신탁

최근 금융권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맞춤형 신탁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도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의 활용도를 높이 평가해 올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개편을 주요 과제로 채택했다. 신탁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국내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의 변화를 겪고 있다. 고령인구의 치매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1인 고령가구의 비중 증가 등 고령층이 나이 들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 비율)은 2016년 9.99%, 치매환자 수는 68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15년 기준 약 138만명 규모이고 매년 평균 5%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퇴직자들은 은퇴 후에도 남은 20~30년의 고령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국내 경제는 이미 저성장·저금리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어 고령층의 자산관리와 관련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은행, 증권사 등 금융권에서는 고령화 시대의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맞춤형 신탁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의 활용도를 높이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올해 신탁업 제도의 전면개편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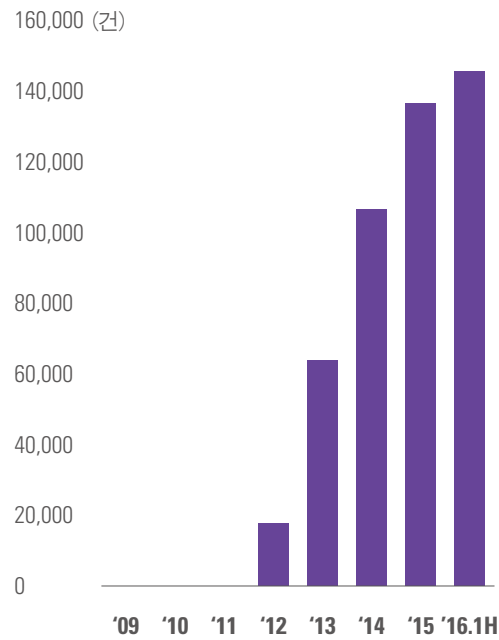
해외 주요국의 경우 신탁은 노후 재산관리,
부의 이전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

우리나라보다 앞서 신탁제도가 발달하기 시작한 일본은 2004~2006년에 신탁업 관련 제도를 개편한 이후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한꺼번에 수탁 받아 관리하는 포괄신탁(국내의 종합재산신탁과 동일)이 활성화되는 등 신탁이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라 개인들의 상속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정부 주도의 고령자 자산이전 활성화 정책에 부응한 신탁상품이 출시되면서 신탁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3년과 2015년 조부모(부모)가 손자(또는 자녀)에게 교육자금 증여 시 1인당 1,5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 결혼·육아자금 증여 시 1인당 1,000만엔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해 신탁회사들이 신탁상품을 설계·출시하였다. 한편 2015년 이후 상속세제 강화, 증여세제 완화 등에 따라 고령자의 자산증여·상속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하였고 이와 관련해 최소 가입가능 조건을 대폭 낮춘 보급형 생전신탁을 출시하면서 고령화 시대의 중요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신탁의 활용도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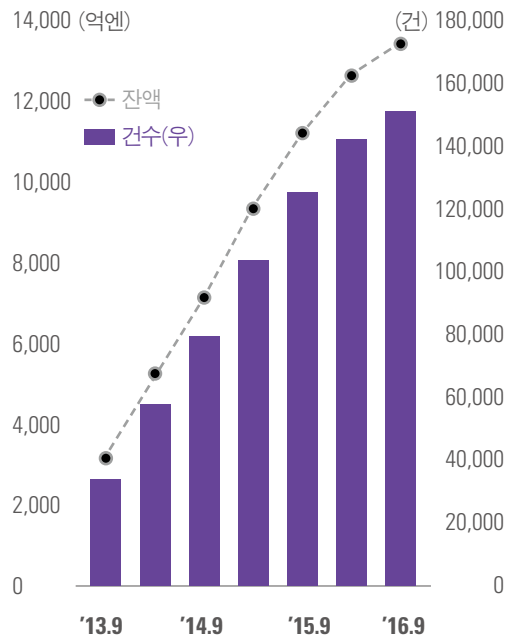
한편 미국의 경우 신탁은 이미 상속설계, 절세, 프라이버시 유지, 부양가족 및 친척의 다른 수익자 등으로의 자산 이전, 자선단체 기부, 질병 또는 장애 등의 상황에서도 자산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 가능한 제도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개인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제도상 혜택에 기인한다. 예를 들면 상속재산이 1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자산 소유권자의 사망 시 거쳐야 하는 유언의 검인(probate) 과정에 대해 생전신탁으로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최소 불가능한 생전신탁을 가입할 경우에는 상속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의 자산관리 및 보존, 상속에 대한 세제혜택이 다양하다. 이와 같이 미국의 신탁은 사회문화적 요소와 주요 관련 법 제정이 맞물려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었다

일본 유언대용신탁 계약 건수 추이(누계)



자료 : 일본 신탁협회

일본 교육자금증여신탁 계약 추이



자료 : 일본 신탁협회

국내는 최근 신탁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고령층 대상 다양한 맞춤형 상품의 제공이 확대되는 추세

2017년 3월 말 현재 은행, 증권, 보험사의 총 수탁고는 573.6조원이며, 이 가운데 금전을 위탁하는 금전신탁이 380.2조원으로 약 6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신탁시장은 금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금전신탁 가운데 주기연계신탁(ELT), 정기예금형 신탁 등이 대표적인 상품으로 저금리 시대의 중위험·중수익 금융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며 그 규모가 급증하였다.

그리고 최근 국내 신탁시장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신탁업 본연의 기능인 유연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개인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노후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보유재산의 증여·상속설계 등 위탁자의 뜻대로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수요에 따라 생전신탁, 유언신탁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에 따라 각종 질병으로 인해 위탁자 생전에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여 성년후견 지원신탁, 치매안심신탁 등이 출시되었다. 또한 1인 고령가구의 증가에 따라 생전에는 위탁자가 재산을 운용하고 사후에는 기부를 하거나 남겨진 반려동물을 돌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탁 등 다양한 맞춤형 신탁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상품은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다양한 상품구조 설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가입금액이 낮은 보급형 상품도 출시되어 가입가능 대상 고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과거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여겨져 왔던 신탁상품이 그 가입가능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의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한 기반이 점차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신탁의 기능이 자산증식 목적의 투자 기능뿐만 아니라 자산관리·보존·이전 등의 재산관리 기능이 강점임을 감안하면 국내 신탁의 성장이 자산증식 부문에 치중되어 제한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향후 신탁의 성장잠재력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 시대 국내 신탁상품

구분	내용
KEB 하나은행	하나 리빙트러스트 : 국내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생전신탁. '하나 토탈 케어 트러스트'를 통해 질병에 따른 자산관리, 부동산 관리, 기부 신탁 등을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치매안심신탁 : 치매 대비 자산관리 설계. 치매 판정 후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지급 관리 가족배려신탁 : 본인 사망 시 가족들이 부담 없이 장례, 세금, 채무 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급형 신탁 상품. 생전에 은행에 금전 재산을 신탁하고 귀속 권리자를 정하면 별도의 유산 분할 협의 없이 신탁된 금전 재산을 지급
국민은행	KB 펫신탁 : 사망 후 반려동물 맡아서 돌봐줄 사람(수익자)에게 은행이 자금 지급
우리은행	명문가문 증여신탁 : 자녀 명의 계좌로 6개월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 납입
신한은행	맞춤형 신탁 : 주식, ETF, 국내/해외 채권, 수익증권, 구조화상품 등 다양한 투자자산 분야

자료 : 주요 일간지

향후 고령화 시대 자산관리수단으로서의 신탁의 기능은 신탁제도 개편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 될 듯

금융위는 올해 초 신탁업이 본연의 유연성·자율성을 바탕으로 최근의 사회·경제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7년 금융개혁 5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신탁업 전면 개편”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제도개편의 큰 방향은 현재 자본시장법 상 규율되고 있는 신탁업을 별도의 「신탁업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의 신탁회사의 수탁재산별 인가단위를 관리·처분·운용 등 기능별로 전환하고, 자기자본 등 진입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유형의 소규모 신탁업자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존 상속 세제와 법률자문에 강점이 있는 법무법인은 유언신탁 전문 신탁법인으로, 의료법인 등은 치매요양신탁 전문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수탁재산 범위 확대, 종합재산신탁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화 함으로써 재산일체를 하나의 신탁계약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탁가능 재산이 부채가 수반되는 재산일체와 보험금청구권 등까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한 다양한 맞춤형 신탁계약의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 신탁시장은 전문화된 신탁회사의 성장과 함께 개인의 자산 관리·증식·보존·이전 등 종합자산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여 잠재적인 성장성이 높다. 다만 수요 측면에서는 신탁을 필요로 하는 특수 상황에 있는 고객을 제외하고, 법제도 및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자산관리 또는 상속 및 증여의 목적으로 활용될 유인이 부족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자산 운용 및 세제지원 등 지속적인 규제 측면의 완화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향후 유언대용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활용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만큼 고령층의 종합적인 재산관리에 대한 니즈가 신탁으로 해결 가능하여 국내 신탁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살펴보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통상정책이 불확실한 방향으로 급변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거세지는 통상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도 무역보복 타격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트럼프 대통령,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트럼프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트럼프는 취임사에서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한다(Buy American and Hire American)”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는 등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구할 것임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 난민 입국금지, 멕시코국경 장벽설치 등 유세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함에 따라, NAFTA 재협상, 중국 등에 대한 징벌적 관세부과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과격한 통상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실제로 트럼프는 “무역협정이 미국에 고소득 일자리를 가져다주고 우리 경제 중추인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호무역을 강화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미국 무역적자의
78.9%는 중국 등
5대 수입국으로부터
발생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규모(상품 수출입)는 3조 6,429억 달러이며,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GDP의 3.9% 수준인 7,354억 달러이다. 미국의 주 수출시장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 영국 등으로 주요 5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이며, 중국, 멕시코, 캐나다, 일본, 독일 등이 미국의 5대 수입국으로 주요 5개국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8.5%를 기록 중이다. 미국을 상대로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아일랜드, 베트남, 이탈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10개국으로, 미국은 무역적자 중 47.2%를 중국, 78.9%를 상위 5개국, 97.5%를 상위 10개국으로부터 기록하고 있다.



● 미국 행정부는 반덤핑 등 수입규제와 환율조작국 지정의 무역구제 수단을 보유

미국의 국제무역 관련 권한은 연방헌법 제1조 제8장 제3항, 일명 ‘통상조항’에 따라 의회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도 환율조작에 대한 제재,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 집행,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수입규제 등의 대응책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부가 재량적으로 취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단으로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301조, 수입규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이 있는데, 크게 ①관세부과,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규제로 직접적인 무역수지 개선을 추구하거나 ②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달러화 약세를 통한 간접적인 무역수지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 중국과 멕시코가 수입규제의 타깃이 될 전망이다
대부분 수출국도 타격이 불가피

미국이 직접적인 수입규제에 나설 경우 사실상 타깃은 미국 무역적자의 1/2을 차지하는 중국과 자국 GDP 대비 7% 이상의 무역흑자를 미국을 통해서 기록 중인 멕시코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수입규제 강화를 위한 정책이나 조치가 국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될 경우 대부분 수출국이 대미수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고율관세 등의 수입규제를 통하여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등의 주요 대미 수출품은 전기기기, 가구, 조명기기, 의류, 신발 등 저가 소비재로 대표적인 미국의 비교열위 품목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세부과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은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보복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수출기업에게도 피해가 예상된다.

● 환율조작국 지정은 낙인효과 및 통화가치 절상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효과가 커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무역수지 개선을 꾀할 경우 1차적인 환율조작국 타깃은 미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중국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국과 대만 등 대미흑자가 큰 다른 나라도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FT는 GDP 대비 경상수지와 실질환율 저평가 등을 감안할 때 ‘환율조작’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은 중국이나 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환율조작국 관련 제재의 경우, 심층조사 착수 → 시정 요구 → 제재 시행까지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되고, 제재의 강제성도 크지 못해서 직접적인 제재 효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율조작국 지정에 따른 영향은 직접적인 제재효과보다 환율조작국이라는 낙인효과(stigma)와 지정에 따른 통화가치 변화(절상)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에 달려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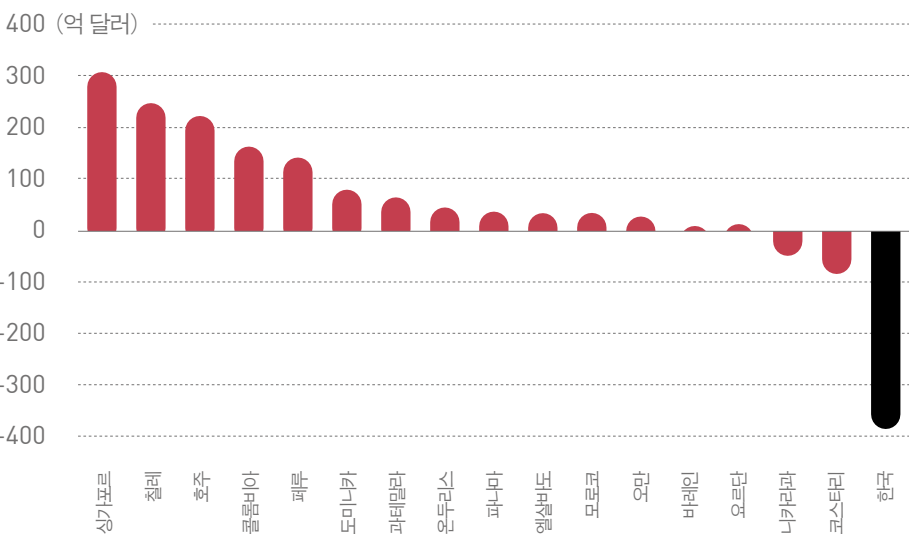
●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율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은 쉽지 않을 전망

트럼프의 반자유주의적 성향과 보호무역을 지지하는 여론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반덤핑 ·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가 빈번해지면서 규제의 강도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해온 공화당 주류와의 입장차이 등으로 고율관세 부과, FTA 폐기, 환율조작국 지정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고율관세 부과는 교역 상대국의 보복으로 무역축소의 부작용만 노출했으며, 미국산 제품의 품질경쟁력 개선이 없는 교역 상대국의 시장개방도 실제 미국경제에 미친 영향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한국이 미국의 무역보복 타깃이 될 가능성 배제 못해

다만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최저수준이고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보다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 하에서는 슈퍼 301조 부활, FTA 전면 재협상 등 대통령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 · 미 FTA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0.77%) 반면, 중국에 이어 무역구제 대상국 2위이며 FTA 이후 무역흑자가 크게 확대된 나라라는 점에서 중국 · 멕시코에 이어 미국의 무역보복 타깃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림 1)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미투자 등 현지화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TA 발효전후(3년) 미국의 무역수지 변화비교 자료 : Third Way



분양형 호텔, 수익률은 높으나 투자에 신중할 필요

최근 수익형 부동산인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대 10년까지 7% 가량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분양형 호텔은 솔깃한 투자상품이다.

하지만 수익률 보장이 시행사의 악정 사항이어서 구속력이 약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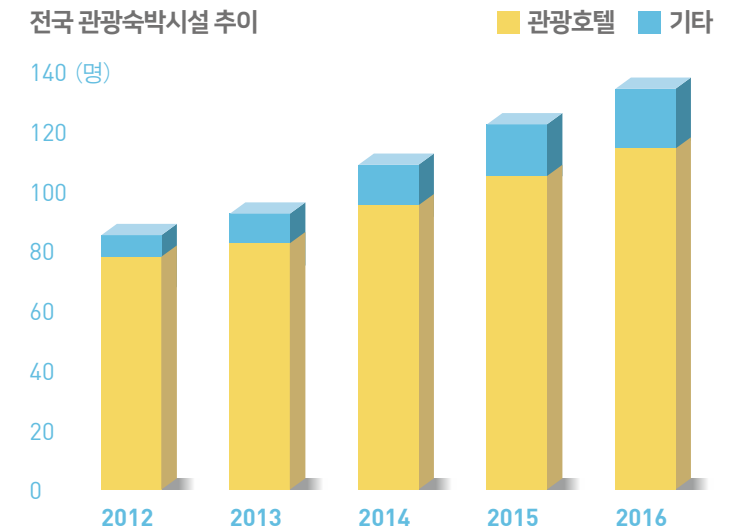
향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위험도 크다.

**최대 10년까지 7% 가량의 수익률을 보장하나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

분양형호텔은 관광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관광숙박시설과 달리 공중위생관리업의 규제를 받는 일반숙박시설이다. 2012년부터 수도권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공급이 크게 늘었는데, 관광호텔과 달리 분양과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대개 오피스텔과 투자금액이 비슷한데 분양형 호텔을 짓는 시행사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경우가 많다. 정기예금 금리가 2%에도 못 미치다보니, 최대 10년까지 7% 가량의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분양형 호텔은 솔깃한 투자상품이다. 하지만 수익률 보장이 시행사의 악정 사항이어서 구속력이 약하고, 향후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위험도 크다.



전국 관광숙박시설 추이



주 : 분양형호텔은 일반숙박시설로 집계에서 제외 | 자료 :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최근 분양호텔 확정수익률, 보장기간

호텔명	수익률	보장기간
엠스테이 기흥	7%	3년
해운대 라마다 앙코르	7%	5년
세인트존스 경포	6.5%	5년
로얄 엠포리움	8%	1년
청주 락희	9%	10년
한강 라마다 앙코르	8%	1년
평창 라마다	8%	2년
엠스테이 창원	7%	2년
호텔 스파스토리	8%	4년
RGB 스카이호텔	10%	2년

주 : 확정수익률은 실투자금액 기준 |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준공전에는 시행사와 시공사,

준공후에는 위탁 운영사가 어디인지를 살펴 봐야

분양형 호텔의 투자 위험은 준공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완공까지 이어지는가가 문제인데, 분양형 호텔을 개발하는 시행사와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는 중소형 업체인 경우가 많다. 시행사와 시공사가 호텔 개발 경험이 풍부한지, 신탁사를 통해 분양자금을 관리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최근 대형건설사나 신탁사가 시행사로 호텔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준공 이후에는 전문 운영사가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지가 중요하다. 최근 호텔 시장에서 공급이 크게 늘면서 숙박객 유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숙박객을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과정에서 운영업체가 양호한 인지도와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HTC(아벤트리), AAK(아비스), BGH Korea(베스트웨스턴), AHLA Korea(밸류), 산하HM(라마다), 코업(코업시티호텔) 등 관광호텔이나 레지던스 업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운영사가 분양 호텔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장 큰 어려움

분양형 호텔 투자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수익 약정기간이 끝난 이후이다. 연평균 7%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해도 보장기간이 지나 매각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손실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수분양자가 호텔을 재매각하려 할 때는 시행사의 수익률 보장 조건이 없다는 점이다. 아파트나 상가처럼 구매자가 많은 물건도 아니어서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특히 호텔 시장은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업황 변화가 크다. 최근 사드 갈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제주도 호텔 시장이 큰 타격을 받은 바 있다. 통상 호텔 가동률이 60%를 넘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숙박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량 상품을 제외하면 투자에 신중할 필요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비스드 레지던스가 합법화되면서 분양형 호텔 공급은 2013년부터 크게 늘기 시작했다. 즉, 수익보장 조건 아래 분양된 호텔들이 재매각되는 시점이 아직 오지 않은 셈이다. 또한 호텔 시장은 최근 3년간 관광숙박시설 증가율이 연평균 13%에 달하는 등 공급이 크게 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다. 중국과의 사드 갈등으로 해외 관광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의 방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부담이다. 최근 한중 관계가 회복세로 접어드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호텔 수요까지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러모로 감안할 때, 분양형 호텔은 입지가 양호하고 숙박객을 사전에 일부 확보하는 등 수요가 견고한 우량 상품을 제외하면,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행복 knowhow
[한글지식경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제혜택 포인트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 $\left[\begin{matrix} 13.2\% \\ 16.5\% \end{matrix} \right]$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16.5%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 퇴직금 및 추가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리형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됩니다. ※ 다만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창시원 제 16-00004호(2016.02.01~2016.03.31)

1588-3111
www.hanaw.com

수수료 * 가입 후 1년 경과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임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하나금융투자



독일, 양로원과 어린이집을 한 공간에

독일은 정치교육·시민교육이 발달한 나라다.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힘은 나라를 지탱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양로원을 한 공간에 두는 공동 양육, 보육 시설을 만들기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직접 시니어들을 교육하는 등 다양한 세대 간의 교류를 선도한다.

독일 베를린에서 1~2시간 거리에 위치한 키타 암 자이지그브르그(Kita Am Zeisigberg)는 원래 결핵 환자들을 위한 헬스케어센터였다. 지금은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양육 및 보육 시설로 변모했다. 한 공간에 어린이집과 양로원 건물이 각각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는 어린이집에서 노인은 양로원에서 생활하되, '세대 간의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두 계층이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 대가족 제도에 서처럼 노인과 어린이가 이웃이 되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게 한다. 노인들은 에너지가 가득한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과 함께하며 삶의 의욕을 얻게 되고, 어린이들에게는 노인이 쌓아온 인생 경험이 자연스레 녹아들어 더욱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원리다.



함께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키타 암의 어린이들과 노인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키타암의 시니어와 아이들



어린이와 노인이 인접한 건물에서 기타 암 자이지그브르그 전경. 엔자임제공

세대와 어울림을 실현하다

독일 함부르크의 P&W 양로원 건물의 주방 안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노인들의 웃음소리로 시끌시끌하다. 이곳에서는 백발성성한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것저것을 함께 만드는 것이 일상이다. 이곳에서는 약 150명의 아이들과 200명의 노인들이 함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독일 전역에 1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P&W(Pflegen & Wohnen Farmsen)는 양로원과 어린이집 통합프로그램의 대표주자다.

관계자는 “노인들은 아이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고 웃음을 되찾고 있다”며 “아이들 역시 집에서 만나기 힘든 다른 세대와의 어울림을 통해 노인에 대한 또는 약한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안의 학교, '시니어학교 부영이'

'시니어학교 부영이'는 지난 2001년에 독일 북서부의 도시 레케 (Recke)의 뤼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교사가 되어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 불어, 컴퓨터와 인터넷, 기억력 훈련, 문학 등을 가르친다. 이 시니어학교는 뤼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의 학생과 시설을 활용한, '학교 안의 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 자신 있는 과목을 택하여 강좌를 담당하게 되는데,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며 즐거워한다. 이 학교에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약 120명의 시니어 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시니어학교는 세대 간 대화의 장(場)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노년 세대가 자신과 비슷한 관심과 성향을 가진 또래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또래 간 대화의 장이된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여의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니어학교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여와 나눔의 기쁨을 선물해 준다.

일상을
기록하다,
드로잉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뭘 그릴까. 잘 그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처럼 우리는 그림을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이다. 쉽게 생각하자. 나의 일상을 그릴 것! 우리 집 앞마당,

책상 위 필기도구, 냉장고 안의 야채들까지 소재도 다양하다. 일단! 무조건 그리자.

드로잉의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보통의 일상에 입혀지는 새로움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고, 관찰하다보면 삶에 ‘새로움’이 덧입혀진다. 이러한 소소한 발견이 삶의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간단한 식물스케치로 드로잉에 입문해보자.

자신의 방안,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림은 언제든지 그릴 수 있다. 드로잉용 스케치북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그리는 데에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하다. 우선 연필을 사용해보자. 스케치를 할 때의 자세는 편하게 힘을 빼고 살짝 잡는 정도면 된다.

초보자는 꽃, 과일, 나무와 같이 자연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연에서 얻는 소재는 각각의 모양이 다르다. 정확히 그려야 한다는 부담이 덜하다. 지우개를 사용하다보면 욕심이 생긴다. 볼펜 등으로 몇 번 그리기를 거듭하다보면 완성 단계에 이른다. 연습이 최고다. 연습하다 보면 기술은 따라온다.

전체적인 크기를 결정하고 중심선을 긋자.
중심선은 화분이 찌그러져 보이지 않도록 한다.

전체 그림에서 화분의 크기를 잘 맞춰 스케치한 다음, 단순한 동그라미로 꽃송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고 줄기의 위치와 방향을 그린다.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하면서 균형을 잡는다.

빠른 손놀림으로 꽃송이와 잎사귀, 줄기를 스케치한다. 가장자리로 뻗어나가는 줄기와 잎사귀는 세심하게 표현한다. 줄기가 한 가운데로 모여 뻗뻗하게 보이는 아래쪽은 깊이감이 살도록 농담(濃淡)을 다양하게 넣어준다.

Step 01 드로잉,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Step 02 소재는 자연, 지우개 사용은 No

Step 03 밑그림은 중심선 긋기

Step 04 동그라미로 꽃송이 잡기

Step
05 세심하게 표현하기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온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온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충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금융투자, 하나증권,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저축은행,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주)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하나금융투자(주)의 실적 발표일: 2014.10.13~2015.09.28